



북극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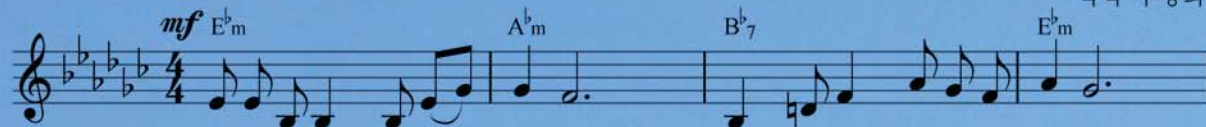
4

주제 105(2016)
루계 제 320호 월간

뵈고 싶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절절하게 (♩=126)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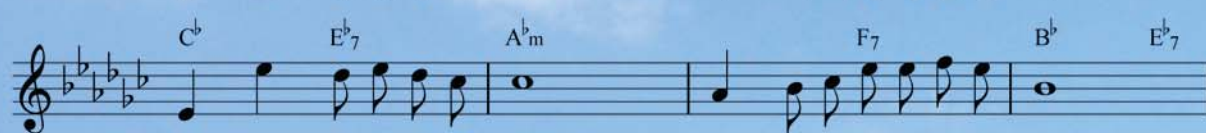
1. 자나 깨나 뵈고 - 싶 어 꿈 에 도 기 다 린 마 음



그 리 읊 던 품 에 - 안 겨 행 - 복 의 눈 물 집 니 다



뵈 고 싶 었 습 니 다 우 리 의 김 정 은 동 지



뵈 고 싶 었 습 니 다 자 애 론 우 리 어 버 이



뵈 고 - 싶 었 습 니 다

2. 친근하고 열정넘친 그 모습 우리를 때면
산이라도 들어옴길 새힘이 용솟습니다
(후렴)
3. 잠시라도 기쁘시게 자랑을 아뢰고 싶어
쌓인 피로 잊으시게 노래춤 펼치고 싶어
(후렴)
4. 천리바다 헤친대도 끝까지 따라서 가리
불길만리 뚫고가도 한마음 충정다하리
(후렴)

차 례

-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 -

인민의 힘은 이렇게 발휘되었다 3

우주강국의 존엄과 긍지를 더해준 민족사적사변 . . . 6

발바닥을 막아 감문을 세운 근대와 인민 10

일 화

유일한 열쇠 12

플과구를 열어놓으시다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존엄한 봄 13

수 기

영광의 그날이 있어 15

만경대 16

수 필

야전 철차 18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시는 항도자 19



-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항도자 -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여 20

보다 큰 승리로 비약해나가게 하는 공동구호 . . . 21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쇠물처럼 들끓는 기업소 22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간다 24

더 밝게 웃어라, 마음껏 노래하라 26

단 상

조선의 첫 군복 32

조국의 품에 안겨

밀거름과 열매 33

피여나는 꽃송이를 34



체육인가정 36

고향소식

지형은 예나 지금이나 같건만... 38

편지

그리움속에 추억의 걸피를 뒤돌으며 40



뜻깊게 경축한 광명성절 41

야화

점을 주는 망장천 41

인상기

연출할수 없는 화폭 46

《또 낡은것으로 될텐데...》 46

조선이 가는 길 47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1) 48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49

민족의 향기

아리랑식당의 소불고기냄새에 이끌리어 50

력사인물

라도향 51

평화수호는 동일의 근본조건 52



핵위협, 누가? 53

지을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3) 54

허위와 위선뿐인 《인권》다령 56

상식

화차 32

피로를 가시는 방법 37

비물질문화유산 48

조선속담 (근심) 36

유모아

문자아래의 물건 51



서해감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9월

-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 -

인민의 힘은 이렇게 발휘되었다

오늘 조국인민은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려 아침과 저녁,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살고있다.

이제 멀지 않아 맞게 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하여 조국인민은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총공격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어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

기업소에서, 오늘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들어만 보아도 가슴이 흐뭇하다.

자기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조국인민의 힘은 언제나 무한대한 기적을 낳고있다.

기적을 낳는 인민의 힘!

생각할수록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

-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 -

고 언제나 그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힘을 총폭발시켜 부강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건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온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적락후성과 경제적난관을 극복하고 새 조국건설의 거창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창조



력을 발동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 발동시켜 새 조국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21일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격려사를 하시고 첫삽도 뜨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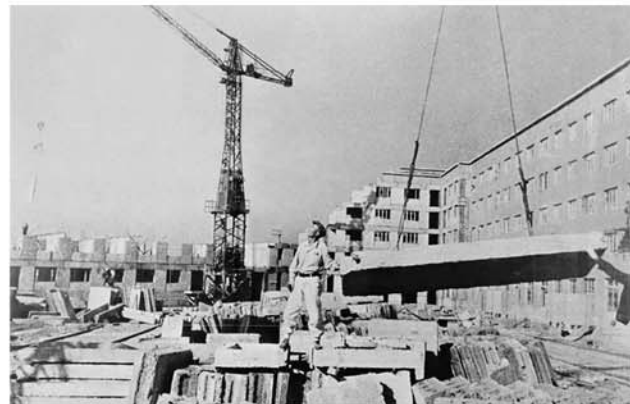
평양시민들은 일체가 10년이나 끝면서도 해내지 못한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동안에 끝내였다. 자연개조사업의 봉화는 삼시에 전국에 타번져 삼신운탄선공사, 단천항수축공사, 압록강호안공사, 해주축항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장들에서 련이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근로자들은 자연개조사업과 함께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속에서 높은 건국열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파괴된 생산시설들을 복구하고 수많은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켰으며 력사적인 문맹퇴치운동의 승리로 하여 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새 조국건설에서 자기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였다.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승리를 이룩하게 하였으며 전후시기에도 더 힘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조국인민은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있게 발휘되였다.

주체42(1953)년 7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주석단을 내리시는 그길로 강남요업공장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여 그들의 심장에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으며 당시의 평양방직공장, 황해제철소, 남포제련소와 유리공장, 강선제강소, 홍남비료공장과 장진강발전소, 함주군 조양리, 홍남공업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들과 복구건설방도를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확고한 신심과 불굴의 투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안겨주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인민은 불과 두주일동안에 파괴된 일부 시설들을 복구하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선 강선의 로동계급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6만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어 천리마의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30여일만에 《천리마》호트락도르를, 40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냈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에서도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하여 조국인민은 남들이 걸어온 수백년력사를 뛰어넘어 단 14년동안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행복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라온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더 좋고, 더 훌륭한것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강제정신,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시였다.

주체87(1998)년 1월, 위대한 장군님의 자강도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로부터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거세찬 열풍이 일어났다.

성강의 봉화가 타오른 력사의 고장에서 콕스탄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며 주체철쇠물이 쏟아지고 라남의 기계제작기지에서는 나라의 국력강화에 이바지하는 특대형의 첨단설비가 련이어 태어났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는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초고전력전기로와 무연탄가스화공정의 련이은 준공을 안아올렸다. 함흥과 남흥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화학공업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주체비료, 주체비날론경사가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 핵시험의 성공과 같은 5천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안아올리였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만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인민이 세기를 두고 바라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민족변영의 시대이다.

군대와 인민은 불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라선시의 큰물피해를 가시고 신경마을을 펼쳐놓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년도기준을 돌파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수없이 창조되였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이렇게 발휘되였다.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인민이 더 억세게 팔을 끼고 력사의 새 걸음을 크게 내짚고있다.

고난과 역경이 도처에서 머리를 쳐들고 행복의 길에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있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전진은 더 맥맥히 이어질것이며 비상히 양양되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강성의 래일은 휘황히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2월

-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 -

우주강국의 존엄과 긍지를 더해준 민족사적사변

선군으로 존엄높은 조국땅에
경이적인 사변이 또 터졌다.

지난 2월 광명성질을 앞두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것이다.

《광명성-4》호발사가 성과적
으로 진행되었다는 격동적인 소
식은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
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뚫어번
지게 하였다.

북변의 하늘아래 첫 고장으로
부터 분계연선의 마을, 증산의
동음높은 공장들과 들끓는 협동
벌들, 천길땅속의 지하막장에



이르기까지 격정에 젖은 환희에
찬 만세의 환호성이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
가나 《광명성-4》호의 궤도진
입소식으로 들끓었다.

《조국의 힘을 다시금 깊이
느꼈다.》,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심
장이 뚫어번진다.》, 《우주강
국의 존엄과 긍지를 더해준 민
족사적사변》...

사람들 누구나 열광의 환호를
터치였고 일터와 거리, 마을들
이 들썩거렸다.

우주강국, 조국의 국력을 만
리대공에 과시한 력사적인 사변
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
회,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고 축포가 발사되는 등
은 나라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
다.

세계도 조국의 위성발사완전
성공소식으로 벅적 끓었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
보스찌통신, 로씨야 24TV방송,
엔떼웨TV방송, 중국의 신화통

신,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CNN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
지통신, NHK방송 등 세계언론
들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의 성과적발사소식을 여러차
레 반복보도하였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인
사들도 위성의 성과적발사를 축
하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
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
성공은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마련한
위대한 창조물이며 조선의 과학
기술과 경제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끼르기즈스탄 《끼르기즈 엘》
인민통일공화국 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아. 우쭈쁘바예브는 조선
이 자체의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진행한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또
다시 성공한것은 조선인민의 위
대한 승리일뿐아니라 세계 진보
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



-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 -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하고 기쁨에 넘쳐있는 조국인민들

무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의 성과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궤도를 따라 자기 나라 상공을 지나는 《광명성-4》호를 확인하였다. 미전략사령부는 기술적요구가 매우 높은 거의 원에 가까운 극궤도에 위성들을

린것을 보면 《북의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인류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그때로부터 수십년,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고있는 위성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성을 자기의 운반로케트로, 자기의 발사대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첫 위성을 쏘올린 때로부터 20년도 안되는 기간에 조국은 우주개발국으로부터 우주강국으로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다.

두차례의 시험위성발사와 실용위성인 과학기술위성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의 도약, 경사궤도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으로의 급속한 발전.

평화적우주개발은 더이상 대국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매개 나라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시비할 권리가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걸고들며 《도전》이요, 《위반》이요 하고 도발을 부리지만 조

국의 위성들은 앞으로도 만리대공으로 계속 거세차게 날아올를 것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조국의 우주과학기술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진행되었다.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을 수십만명의 수도시민들이 뜨겁게 환영하였다.



-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 -

날바다를 막아 갯문을 세운 근대와 인민



조선서해에는 대동강하류 끝살뿌리-피도-광량만사이의 20리날바다를 가로막아 건설한 바다갯문이 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규모의 수리구조물로 일떠선 이 갯문을 조국인민은 《서해갯문》이라고 부른다.

서해갯문건설은 그야말로 갯문건설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단하고 거창하고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다.

주체70(1981)년 5월 착공의 첫삽을 뜬 때로부터 5년간에 걸치는 서해갯문건설과정은 무비의 대담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혁명적으로 실천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의 련속이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들이 이룩되고 과학과 기술의 새 경지가 개척되는 과정이었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기념비적창조물을 건설해나갔다.

설계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것처럼 방대한 설계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어렵고 복잡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여 갯문건설에서 주체성과 현대성, 과학성을 확고히 담보해나갔다.

서해갯문건설은 규모와 작업량에서 그때까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러나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와 1211고지의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그 투지, 그 기백으로 흑한과 무더위, 사나운

풍랑을 이겨내며 날바다를 막고 언제를 건설하였다.

갯문건설에서 최절정을 이루는 언제의 마감막이공사때였다.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물에 가해지는 힘은 4 000t이상으로 커졌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강의 의지와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며 1m, 1m 전진하여 어느덧 60m제선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정조가 이루어지는 5분동안에 수천t의 무게를 가진 함형부재를 60m의 구간에 정확히 앉히기로 하였다. 세찬 물결에 함형부재가 떠받들리우며 바줄이 끊어졌으나 다시 예비바줄로 부재를 가져다놓았다. 함형부재의 밑바닥에 있는 물구멍을 폭파하여 물을 채워야 부재를 가라앉힐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폭파선이 4m이상이나 끊어져나갔다.

이때였다.

폭파수임무를 맡은 한 군관이 전기선을 잡았다. 그러자 그의 뒤를 따라 2명의 군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목메인 소리로 폭파구령을 재촉하였다.

어느덧 함형부재는 서서히 가라앉고 량쪽대안에서 뻗은 언제

가 하나로 굳게 이어져 대동강과 바다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수놓으며 갯문건설과 수리공학력사에 없는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었고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여러가지 대중적혁신운동이 벌어졌다. 이런 기적과 혁신운동으로 그들은 1 500여만 m²의 토량을 처리하고 200여만 m³의 콘크리트를 타입하였으며 1 600여만m²의 돌과 골재를 채취운반하여 20리날바다우에 3개의 갯실과 36개의 수문을 가진 대언제를 쌓았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학기술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큰 갯실과 무덤이 언제 그리고 종합적인 조명설비들을 갖춘 갯문을 일떠세웠다.

새로운 80년대건설속도, 서해갯문건설속도는 이렇게 창조되었다.

서해갯문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0(1981)년 5월 22일 배를 타시고 오랜 시간 파도세찬 남포앞 바다를 돌아보시면서 서해갯문의 위치를 끝살뿌리-피도-광

량만사이로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갯문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2(1983)년 4월 20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서해갯문건설장을 찾으시여 갯문건설에서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대상들과 갯문을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였다.

주체75(1986)년 6월에 준공된 서해갯문에는 3개의 갯실이 있다. 1호갯실로는 2 000t급, 2호갯실로는 50 000t급, 3호갯실로는 20 000t급배들이 드나들수 있으며 갯문우의 회전다리에는 기차길과 자동차길, 걸음길이 있다.

하기에 서해갯문을 참관한 해외동포들은 이렇게 말한다.

《서해갯문은 사람이 과연 어떤것을 창조할수 있으며 그 위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런 갯문건설은 오직 하나로 굳게 뭉쳐 자력갱생하는 인민과 강력한 경제적잠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본사기자 한신애



일
화

유일한

열쇠

돌파구를

열어놓으시다

주체52(1963)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포시 강서구역 잠진리를 찾으시었을 때이다.

농장포전을 둘러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중나온 리의 한 일군에게 올해 농사형편은 어떠한가, 며칠전의 태풍에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가고 물으시고나서 지난해 리의 농사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었다.

일군이 청산리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군적으로 보면 훨씬 앞선 단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청산리보다는 왜 떨어졌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었다.

일군이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이께서는 무슨 일이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시면서 단단히 결심을 하고 청산리와 경쟁해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잘 발동시키는것이다, 모든 농장원들이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적극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자면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주체63(1974)년도 마지막분기에 들어선 10월 3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진행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참석하시었다.

당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해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료해하시다가 공업부문에서 계획을 미달하였다는것을 아시고 현지에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년간계획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미달된 계획을 수행할 해결책이 없겠는가고 참가자들에게 물으시었다.

회의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령님께서는 답답하신듯 옷단추를 풀어 제끼시며 좌중에 다시금 물으시었다.

여전히 회의장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수령님께 경제부문 일군들이 매우 힘들어하는데 당중앙이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경제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발동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후에 일군은 그이께서 교시하신대로 농장원들의 요구와 심정을 리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작업조직에서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며 농장상점의 판매조직을 개선하여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고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등 대책들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농장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알곡증산의 유일한 열쇠였다. 사람과의 사업이 심화되는데 따라 농장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는 눈에 띄게 전환이 일어났으며 농장의 생산실적은 해마다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자주 이 농장을 찾으시여 군중속에 몇십대의 트랙터나 몇백t의 화학비료보다 더 큰 예비와 잠재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군중을 발동하라고 자주 일군들을 일깨워주곤 하시었다.

* * *

순간 좌중의 시선은 일시에 그이께 쏠리였다.

죄스러움과 놀라움이 비긴 눈길들이였다. 장군님의 결심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제서야 시름이 놓이신듯 당에서 한번 말아서 해보라고 지지해주시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군님께서는 즉시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부르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것처럼 심려하시는 경제문제를 풀자면 전투를 벌려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 연말까지는 80일 남짓이 남아있는데 한 열흘동안 준비를 했다가 70일 전투를 벌려 경제건설을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자, 이번 전투를 통해서 우리 당이 한번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자고 교시하시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진 70일전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게 되였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 * *



존엄한 봄

(진호에서 계속)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도 배워두면 혁명을 위해 큰 밑천이 될수 있으니 그가 백파장교를 따라다니라고 배척하는것은 너무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고 하였다. 해방후 박일파가 아.뿔쓰또이의 《고난의 길》과 같은 명작들을 많이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수 있는것은 학창시절에 로어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박일파와 마찬가지로 김혁과 박소심도 복교가 가능하다면 한해 공부를 더하여 중학과정을 어떻게 하나 끝내라고 권고하였다. 리광한교장이 공산주의를 리해하는 사람이니 김성주가 한해 공부를 더하겠다고 청원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것이였다.

나는 공부는 자습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인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파괴된 조직들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혁명을 외면하고 학창으로 되돌아갈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었다.

중학공부를 단념하고 막상 길림을 떠나자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조국에 나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동설한에 나를 홀몸으로 고향에 내보내던 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앞에 앉혀놓고 조선력사와 조선지리를 가르쳐주던 일, 림종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주만은 중학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 이어 하루 세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주를 중학교에 꼭 보내라고 유언하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였다.

졸업을 한해 앞두고 내가 학교를 중도반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삼년동안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샅빨래와 샅바느질을 하여 다달이 학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시며 동생들은 얼마나 허전해하겠는가.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며 학비를 보태주던 아버지의 친구들과 나의 학우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만은 나를 리해해줄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때에도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서려는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였다. 그러니 아들이 설사 중학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반단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한 처사라면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믿었다.

육문중학교를 중퇴하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간것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때로부터 나의 지하활동이 시작되였고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집에 문안편지 한장 전하지도 못하고 돈화로가는 내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혁명에 전념할 때라고 하여도 한두줄의 인사야 전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스스로 자기를 꾸짖어도 보았지만 웬일인지 편지를 쓸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 잡혀들어간 다음에도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내 신상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1929년 겨울 방학을 우리 집에 가서 보낸 동무들이 그만 내가 감옥에 간 전말을 어머니에게 알리고말았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길림

에 오지 않았었다.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천리밖에도 있다가도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와서 간수들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애걸하는것이 어머니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참용성을 발휘한셈이였다. 아버지가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는 나까지 데리고 몇번씩 면회를 가던 어머니가 10년후 아들이 옥중생활을 할 때에 단 한번도 감옥을 찾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후날 안도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도 어머니는 감옥에 찾아오지 않은 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나는 감옥을 찾아오지 않은 거기에 바로 어머니의 참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철창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오히려 성주가 괴로와할수 있다, 내가 면회를 간대야 그 애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는가, 앞에는 넘어야 할 고개도 많은데 첫걸음에서부터 인정에 끌리면 그 애가 장차 걸음을 똑바로 걸겠는가, 옥중에서 고독을 느끼더라도 차라리 면회를 가지 않는것이 그 애를 위해서는 리로울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이런 심정으로 부터 면회를 단념할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이 사실에서 순수한 보통녀성으로부터 혁명가로 성장한 강직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감옥생활을 마치고 넓은 세상에 나서고보니 이제는 학교에 매인 몸도 아닌데 집에 가서 다문 며칠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돈화땅으로 결연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돈화에서 서남쪽으로 60리쯤 가면 사도황구라는 산간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담당한 공작지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후 길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선봉이 무송에까지 미쳐오는것을 예방하려고 공청, 백산청년동맹, 부녀회 조직들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여러 세대의 집들이 안도와 돈화방면으로 이주하였다. 어머니자신도 추운 겨울날 형권삼촌과 함께 동생들을 데리고 안도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동만으로 이주한 수십 세대의 집들중 여섯세대가 사도황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 여섯세대가운데는 고재봉이네 일가도 포함되어있었다.

정의부 급비생으로 무송사범 학교를 졸업한 고재봉은 백산학교에서 교편도 잡고 독립군에 입대하여 무송지구별동대 지휘관으로도 복무하였다. 그는 반일군중단체의 핵심이었다.

그의 손아래동생 고재룡은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이었다. 후날 그는 양정우부대에 참군하였다가 몽강인가 립강에서 전사하였다.

고재봉의 막내동생 고재림은 백산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공청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1930년 봄부터는 만철의학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있었다. 그가 길림에 있을 때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고씨문중사람들은 원래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을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객주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는 그때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수없이 찾아왔다. 그들중에는 우리 집에서 침식을 해가며 며칠씩 묵어가는 사람들도

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시중을 하느라고 손에서 쌀함박과 물동이를 놓을새가 없었다.

이것이 군벌의 주의를 끌지 않을수 없었다.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재봉의 어머니(송계심)는 어느날 우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김선생님, 댁에서는 이제부터 손님들을 치르지 말아주시우다. 지금처럼 댁에 사람들이 끊게 되면 김선생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길수 있수다. 무송에 오는 독립군손님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으니 <무림의원> 댁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우다.》

이 일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재봉의 어머니를 크게 신임하게 되었으며 나도 고재봉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백산학교가 폐교된 후 우리 어머니가 교사로 쓸 건물을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도 고재봉이네는 자기 집 옷방을 교실로 쓰라고 선뜻 내맡기었다.

고재봉은 사도황구에 온지 반년도 안되었지만 그동안 동흥의 숙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부백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사도황구와 그 주변마을들에 공청과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반일부녀회와 농민동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재봉의 어머니는 내가 가자 너무 반가와 눈물을 흘리며 무송시절을 회상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얼마전에 석방되어 사도황구로 곧추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모색은 예전과 다름없으나 부종이 있고 병색이 짙는데 집의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이 집에서 한달가까이 신세를 졌다.

고재봉의 어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세워주느라고 많은 고생

을 하였다.

그는 보리쌀에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산나물을 무친 찬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내앞에 끼니마다 독상을 차려주면서도 음식이 초라해서 안됐다고 미안해하였다. 생소한 산골에 와서 객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농사를 방금 시작한데다가 외손자들까지 와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 집안형편을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무송시절부터 나의 식성을 잘 알고있는 송계심어머니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분들을 구해다가 나에게 국수를 눌러주었고 고재봉은 돈화현성에 가서 절입한 송어까지 사다가 밥상에 놓아주었다. 고재봉의 매부는 부중에 특효가 있다는 상골을 잡으려고 새벽마다 샘터에 나갔다. 이 일가의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어갔다.

고재봉은 안도에까지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왔다. 사도황구에서 안도까지 200리가량 되었는데 그는 이 먼길을 하루동안에 가내군 하였다. 고재봉은 소설 《림격정》에 나오는 황천왕동이처럼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고 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돈화지방에 머무르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철주가 고재봉을 따라 사도황구에까지 왔다 갔다. 철주는 어머니의 편지와 내가 입을 속옷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무송을 떠난 집식구들이 그동안 구안도(송강) 서문밖에 있는 마춘옥이네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다가 흥룡촌에 이사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구안도에 계실 때 마춘옥이네 집에서 재봉기를 세내어 샅바느질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흥룡촌에 가서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수 기

영광의 그날이 있어

이제 얼마 안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해마다 이날을 맞이할 때면 나는 한세대에 두재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어 우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곤 한다.

더우기 나에게는 그이를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웠던 못 잊을 학창시절이 있다.

주체59(1970)년 9월 1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요일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내가 공부하던 평양련광중학교(당시)를 찾아오시였다.

앞쪽 출입문을 여시고 내가 공부하던 5학년 6반 교실로 들어오신 그이를 우리 반동무들은 발까지 동동 구르며 열광적으로 맞이하였다.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공부를 하는가고 물으시고는 교탁모서리를 한쪽 팔꿈치로 짚으시고 가까이에 앉은 학생들에게 한명, 한명 몇살인가고 물으시였다.

모두의 기운찬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처녀애들이 확실히 괜찮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물으시였다.

《저쪽방 아이들이 총을 메겠다는데 너희들도 멜수 있겠니?》

이 뜻밖의 물으심에 우리들은 순간 당황해하였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평화에 침입했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고 《EC-121》대형간첩비행기가 격추되자 당장 전쟁의 불을 지를듯이 미쳐날뛰는 미제를 맞받아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일떠선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과 함께 도발자들을 쳐부시고싶은 열망에 불타던 우리들인지라 총이라는 말에 절로 가슴이 뛰고 피가 끓어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큰소리로 멜수 있다고 대답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교실이 떠나갈듯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우리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부관아저씨에게 총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더러 앞에 나와 총을 메보라고 하시였다. 총을 들고 어쩔줄 몰라하는 나에게 손수 총을 메워주시고 무겁지 않는가고 물어주시며 총을 메고 산에 올라갈수 있는가도 헤아려주시였다.

나를 자리로 들여보내신 그이께서는 자그마한 학생용의자에 앉으시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고사총수가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제서야 나를 비롯한 우리 학급동무들은 그이께서 중학교학생들로 군대와 비슷한 조직을 새로 무어주시려고 일요일에 우리 학교를 찾아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들은 모르고있었지만 그 전날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청년의용군과 소년신봉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중학교학생들로 반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조직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미래의 청년근위대원들의 육체적준비와 사상적각오정도를 알아보시려고 우리 학교에 나오시였던것이다.

그날 그이께서는 근위대원들에게 야영소를 잘지어주자고, 야영소는 경치 좋고 훈련하기 좋은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고 동해안에 보내여 야영생활도 키르기운동도 시켜야 하겠다고 교시하시며 몸이 튼튼하여야 공부도 잘할수 있고 앞으로 훌륭한 일군이 될수 있다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점심시간이 썩 지나서야 우리 학교를 떠나시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지 얼마후 우리 학교에서는 뜻깊은 첫 붉은청년근위대 입대모임을 가지였으며 붉은청년근위대는 그해 1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시위에도 참가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로농적위군과 어깨나란히 향토방위를 위한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있다.

전민이 무장된 우리 조국을 건드릴자는 이 세상에 없다.

중구역 련광고급중학교 교원 박영금



고향집에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의 일부



만 경 대

대동강 푸른 물이 안기어 들고 날아가던 새들도 노래하는 만경대에 따뜻한 봄이 왔다. 예로부터 명승지로 이름높은 만경대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겨맞는다.

만경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곳이다. 만경대두리에 있는 높고낮은 봉우리가운데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만경봉이라 부른다.

이곳에 올라서면 일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하여 만경봉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만경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였으며 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

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적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만경대고향집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혁명일가분들의 빛나는 투쟁업적을 보여주는 만경대혁명사적관도 있다.

그리고 수령님의 어린시절 발자취가 어려웠던 썰매바위, 군함바위, 씨름터, 무지개잡이소나무, 학습터, 낚시터 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혁명일가분들의 투쟁력사가 깊이 아로새겨져있는 만경대를 조선인민들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혁명의 성지로 부르며 끝없이 찾고있다.



조국개선나루터
무지개잡이소나무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만경대혁명사적관



순화학교



군함바위



야전렬차

얼마전 저녁노을로 붉게 물든 평양역앞을 지날 때였다.

평양역의 시계종탑에서 울리는 노래선률에 심취되어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까
창문가에 붙박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까
...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울리는 이 노래선률을 듣느라니 며칠 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 궁전경의식에 참가하였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렬차보존실에서였다. 나의 눈앞에 아버지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수수한 야전렬차와 현지도로로정도가 안겨왔다.

1945. 12-2011. 12.
총거리 : 43만 2천km(108만 리)
렬차리용회수 : 1 567회
렬차를 리용하신 거리 : 33

만 4천km
...

볼수록, 생각할수록 아버지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심장의 마지막박동, 생의 마지막숨결마저도 깡그리 바치시며 울려가신 인민행렬차의 고동소리가 나의 가슴에 메아리쳐와 목이 짝 메었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 그 어느 초소나 일터, 그 어느 가정에나 우리 장군님 타신 야전렬차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간직되어있다.

온 나라 인민이 단잠에 든 길은 밤 자신께서는 끊임없는 초강도렬차강행군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들이 잠에서 깨어날 세라 렬차의 기적소리마저 울리지 못하게 하신 사연이며 출근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을 기다려 렬차에서 쪽잠에 드시고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신 눈물겨운 이야기를 누구나가 새겨안고있다.

야전렬차를 집무실삼아 오늘날은 자강도, 래일은 함경북도와 량강도에로 끊임없는 현지도

의 길을 이어가시며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신 아버지장군님.

그이께서 헤쳐가신 그 길이 있어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 안녕이 수호되고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지 않았던가.

진정 그날에 울린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는 선군혁명의 나팔소리였고 인민사랑의 메아리였다.

나에게는 야전렬차가 벗어났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오늘도 이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도 품모도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시기에 아버지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질풍같이 달리는 김일성-김정일조선의 기관차는 자주외의 궤도, 선군의 궤도, 사회주의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전속으로 달려 반드시 최후승리의 종착역에 가닿을것이다.

본사기자 강진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렬차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시는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이를 흠모하는 경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의 어느 한 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의 거대한 관심을 모은 세계의 가장 젊으신 령도자로 기록되시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간사랑의 화신이라고 평하였다.

그런가 하면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겨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적품모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여러 나라 신문들에서는 그이를 《한없이 겸손하고 인자하신분》, 《정말로 따뜻한 정을 품고계시는분》, 《세심하고 너그러우신분》, 《위풍있고 친절하신분》, 《온 세계를 휘감을수 있는 커다란 견인력과 너그러움을 지니신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이것은 그이께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예로부터 민심을 얻어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일러왔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어지는 정치를 가장 성공적인 정치로 보았다.

그러나 력사적으로 이러한 견해가 정치에 구현된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계승하신 그때로부터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의 나날 자신의 아픔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시고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말기고 가신 인민을 위해 공장과 농장, 들끓는 건설장, 새로 일떠선 거리와 살림집들,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쉬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나날 인민들에게 부어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혈육들사이의 정과 사랑은

훨씬 초월한 가장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라선시의 큰물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전 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말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라선지구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에서 불행의 대명사로 불리워야 할 고아들이 조국에서는 그이의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궁전처럼 화려하게 꾸려진 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도 현대적인 양로원들에서 젊음을 다시 찾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민과 사소한 간격도 두지 않으시였다.

인민을 찾아가시여서는 인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인민들과 어깨를 결고 팔을 끼고 사진도 찍으시였다.

하기에 어디서나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은 그이의 좌우명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는 부름으로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를 총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하기에 어디 가나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가시는 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임향심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여

조선로동당은 오늘의 복잡다단한 세계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나가고있다.

창건된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70여년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인민의 지향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백승의 전략전술로 복잡다단한 조선혁명을 이끌어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패도 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왔다.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의 위대성은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은 해방후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로선을 제시하여 새 민주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었고 전후 재더미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체의 기치높이 내외의 온갖 원수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계속혁명로선을 내놓아 사회주

의공업화를 완성하고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특히 조선로동당은 지난 세기말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하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주었다.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이 다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었기에 조국땅우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거연히 일떠설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해나갈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반제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군사적간섭과 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전체 인민을 조국보위성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렸고 전후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대미타협 추종정책을 강요할 때에는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보복》에

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해나갈 열의에 넘쳐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나갔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을 기화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사회주의의 마지막보루인 조선을 압살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갖은 못된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였을 때에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오늘 공화국은 핵렬강들의 횡포무도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인공지구위성제작과 발사를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는 나라로 되었고 그 어느 나라의 간섭과 지배도 없이 자력자강의 힘으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선군의 총대는 더 억세게 버려질것이며 자력자강의 힘은 백배, 천배로 발휘되어 강성국가의 래일이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보다 큰 승리로 비약해 나가게 하는 공동구호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승리의 5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해 나아가는 전체 인민들에게 공동구호를 발표하였다.

공동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는 눈부신 성과들을 큼직큼직하게 마련하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공동구호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은 력사적인 당대회를 맞으며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으로 만난 시련을 뚫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것이다.

공동구호는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여 백두산대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며 주체강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로 끊임없이 비약해나가게 하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문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할데 대한 문제,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키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화국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를 비롯한 전투적구호들에 제시되어있는바와 같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문명강국건설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갈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새겨져있다.

공동구호에는 또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고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농업부문에서 통장훈을 부르며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이 선군시대의 《이채어경》을

펼칠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며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데 대한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고 청년들이 당을 앞장에서 받드는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이 되며 일군들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할데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되어있다.

오늘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공동구호를 받아안은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주체의 사상론이 힘있게 고동치고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세차게 늘뛰는 공동구호는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애국적열의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공동구호가 있어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칠수 있게 되었다. 과학으로 새해의 첫문을 연 조국은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타번지는 총공격전의 열풍은 70일전투의 불길속에 당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으로 거세차게 분출되고있다.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70일전투는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결사전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이 나는 만리마시대에 천만군민의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은 반드시 승리만을 가져올것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쇠물처럼 들끓는 기업소



지난해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 하자고 호소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안의 로동계급이 날에날마다 혁신적양상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기업소의 일군 원동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기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70일전투로 쇠물처럼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는 이미 자체의 힘과 기술로 PLC조종체계를 갖춘 현대적인 산소열법용광로를 성공시킨데 이어 초고전력전기로의 현대화도 완성하였으며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유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은 폐열로 수천kW의 전력을 얻을수 있는 생산공정을 연구도입하였으며 종전의 산소분리기를 현대화하여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쇠물을 취입없이 뽑아내고있다.

또한 합금철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중량테루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철직장과 대형 산소분리기직장, 조강직장과 조피직장, 분피압연직장 등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에서 상반년생산과제를 당 제7차대회전으로 끝낼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드세찬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기업소의 책임일군 김충걸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기업소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주도형의 기업관리를 확고히 틀어쥐

고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기업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체철생산과 중량테루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간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당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70일전투기간 성과를 확대하며 계속 전진해가고있다.

얼마전 공장을 찾은 우리에게 공장일군 서원진은 말하였다.

《지난해에만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차례의 현지 지도를 받은 우리 공장에서는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다. 물론 그 목표를 실현하자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우리

도안창작을 위해 애쓰는 신발도안가들



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안고 벌써 그 첫 걸음을 떼었다.》

그의 말대로 공장에서는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그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구두생산의 선행공정인 도안실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실장 최명옥은 지금까지 23종에 114가지의 확대제품을 새롭게 도안하고 생산실천에 구현하였다고, 현재 도안창작사업에는 공장종업원모두가 떨쳐나섰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와 이야기하는 사이에만도 새로운 도안과 착상을 안고온 기술자, 종업원들로 하여 도안실은 붐비고있었다. 남녀구두만이 아니라 나이와 직종별, 계절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있는 도안, 착상들



서로 돕고 이끌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간다.

은 대번에 우리의 눈길을 끌었으며 도안창작에 떨쳐나선 그들의 숨결을 느끼게 하였다.

그들속에는 지난해 11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가 도안한 국산화된 구두를 보여드린 처녀기술자인 정영도 있었는데 그는 70일전투기간에만도 기술적으로나 질적측면에서 높이 평가된 다섯가지의 남녀구두도안을 내놓았다고 하였다.

그런 열의는 이들이 자체로 개발도입한 발촉정장치를 리용한 주문봉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었다. 이 사업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동시에 리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어떻게 하나 자기들의 제품을 더 좋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생산하려는 충만된 기세는 생산자대중속에서도 높이 울려나왔다.

재단작업반에서는 현대적인 레이자재단기를 창안제작하여 재단실수률과 질을 배로 높였으며 사출작업반에서는 구두창의 무게를 현저히 낮추는 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다. 그런가 하면 갑피직장에서는 갑피공정에 능률적인 컴퓨터분양기와 자동재봉기 등을 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높였으며 제화직장에서는 다종다양한 구두를 질

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다.

공장에서는 매주 3차에 걸쳐 기술학습을 진행하며 특히 과학기술보급실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모르고서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도 또 기술혁신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일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신발생산과 관련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있습니다.》

제화직장장 진성호는 이렇게 말하며 직장에서는 제화공정에 새로운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여러가지 접착제도 개발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와 만난 기술일군인 조명식은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열의에 넘쳐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있다.

우리는 지금 생산하고있는 <매봉산> 구두를 어떻게 하나 세계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총돌격하고있다. 확인하건대 지금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가까운 시일안에 완전히 도약한 명제품들을 내놓게 될것이다.》라고 혁신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생산되는 신발들의 일부





더 밝게 웃어라, 마음껏 노래하라

-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
궁전을 돌아보고 -



노래연습에 열중하는 녀중창소조원들
수예기법을 익혀간다.



조선무용을 장
려하고있다.



우리의 장단
을 가야금에 담
아가는 학생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훌륭히 개건된 궁전과 아이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궁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황홀경에 빠
져들었다.

1층에 특색있게 꾸려진 과학홀이 그러하
였다. 조선지도대형사판과 지구를 박차
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운반로케
트 《은하-3》호모형, 밤하늘의 은하
수를 형상한 천정의 장식들은 학생
소년들이 조국의 자연과 지리를 알
게 하고 내 조국을 세계에 올려세
울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
였다.

컴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
과학기술소조실들이 배치되어있

손풍금과 피아노연주
기법을 익혀간다.



재능있는
서예가로



는 과학동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들로 자라나고있는 소조원들의 모습은 볼수록 대견하였다.

물리소조원 김주영학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궁전에 최신식컴퓨터들과 현대적인 실험, 실습설비들을 보내주시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컴퓨터실기를 높여나가는 학생들



발명가가 될 꿈을 안고



외국어학습에 열중하고있다.



하여 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기타, 피아노, 손풍금소조실을 비롯한 여러 소조실이 있는 예능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벽면에 이채롭게 형상된 병풍이며 가야금, 특색있게 설치된 조명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민족적색채를 살린 가야금소조실, 천정에 마치도 흐르는 비단실을 형상한듯 한 서예소조실, 땀을 흘리며 무용련습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조실가까이에 특별히 꾸려진 샤워실까지 갖춘 조선무용소조실...

매 소조실들의 특색이 살아나도록 독특하게 꾸려진 궁전의 근 150개나 되는 소조실에서 취미와 소질에 따라 기량을 연마해가는 소조원들의 모습은 귀엽기 그지없다. 전문배우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꾸려진

소조실에서 무용동작과 기법들을 배우는것이 너무도 기뻐 힘든줄 모르고 훈련에 열중하는 조선무용소조원들과 입가에 웃음을 담고 조국땅에 펼쳐진 선경들을 수놓아가는 수예소조원들, 은구슬, 금구슬 굴리는듯 한 청고운 목소리로 노래부르는 너중창소조원들과 성악소조원들.

우리는 서예소조실에도 들러보았다.

궁전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의 재간을 보여드린 8살난 방미경어린이가 깜찍한 손으로 붓글쓰는 솜씨는 전문가들마저 감탄할 정도였다.

국제경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손색없이 꾸려진 수영관과 체육관은 또 어떠한가.

수영관을 찾은 우리에게 박연옥지도교원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 물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한다며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수영관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에 손을 담그시여 온도까지 가늠해보시였으며 아이들의 수영복과 훈련복을 세탁해주는 문체에까지 깊이 관심을주시었다.》

뜨거움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궁전일군인 문일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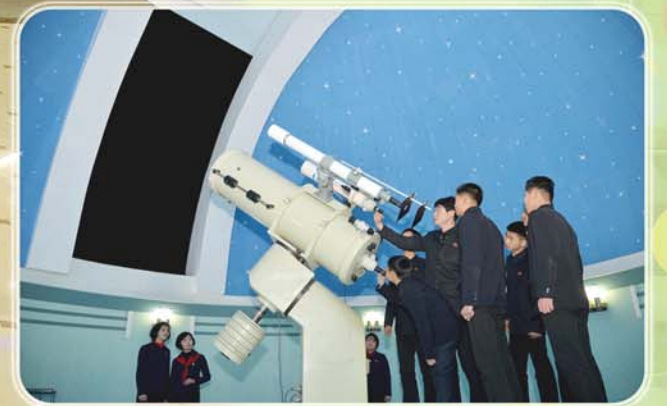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

여러가지 대중활동을 벌려나가고있는 학생들



누구의 바둑솜씨가 제일일가?

천체를 관찰하고있다.





지인 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년전 5월 궁전을 찾으시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궁전개건과 관련하여 140여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아니라 250여



여러가지 체육기술을 배워간다.



전자오락관(왼쪽)과 룰동영화관(오른쪽)에서 즐기는 학생들

건의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었다. 그이의 다심하고 세심한 사랑은 궁전의 그 어느곳에나 다 깃들여 있다.》

현대적미감과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 어떤 예술 공연도 원만히 할수 있게 꾸려진 극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체육명수로 키울수 있게 꾸려놓은 체육소조실들, 휴식시간이면 아이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낼수 있는 룰동영화관, 전자오락관, 궁전야외에 건설한 체육장과 자동차운전실습장,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건설된 합숙 등도 훌륭하였다.

이처럼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궁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행복에 넘쳐 웃고 노래부르는 소조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정말이지 다시 태어나 이런 궁전에서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합숙에서

펴보고싶은 생각이 우리의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밖을 나서니 아이들이 안겨사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전경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아이들아, 위대한 당의 품에서 더 밝게 웃어라, 마음껏 노래하거라, 앞날의 조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밀거름과 열매

지난해말 리과대학에서였다. 대학졸업증을 안고 교정을 나서는 학생들이 담임선생을 찾아왔다.

《선생님, 피타는 노력으로 쌓은 지식을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안겨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조국을 위한 밀거름이 되라고 하신 선생님의 당부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교단에 선지 8년밖에 되지 않는 그는 학생들을 위해 정열과 지식 그리고 사심없는 마음을 바치고있는 컴퓨터과학부 인공지능강좌 교원 김신길이다.

김신길이 대학에 배치되어 처음 강의하는 날이었다. 50살을 넘긴 박사 부교수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대단히 컸다.

그들의 기대대로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저마다 말하였다.

9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깨우쳐주면서도 요점강의를 해주니 머리에 쑥쑥 들어온다.

교단에 서면서 김신길이 생각한것은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유활동을 능동적으로 계발시키는 강의,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랬다. 강의를 해갈수록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게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켜주고 인식과정의

강의후에도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합법칙성에 맞게 학생들의 사유활동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그들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게 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교수에서 교원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식의 주체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유활동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교재의 본질을 파악할수 없다는것을 체험하였다.

하여 그는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자강의안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다. 걸그림에 해당한 내용을 동화상으로 넣고 참고자료, 학습과제까지 제시해야 하는 전자강의안을 만드는데는 많은 품이 들었다. 강의안구성과 그에 맞는 동화상 자료의 취사선택... 그는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품



김신길

그의 탐구와 정열이 깃든 강의안에 대한 평은 대단하였다.

그는 강의안뿐아니라 새로운 과목개척에서도 앞장에 섰다. 계산기능뿐아니라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지능체계설계 등 그가 개척한 과목들은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인재로 키워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가 말은 학급에서 대학생과학탐구상을 받고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경연에서 1등을 한 학생들과 정보학계의 학위를 받은 학생이 8명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 바쳐온 김신길의 노력을 엿볼수 있다.

하지만 그는 늘 밀거름의 역할



얼마전 나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찾았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는 무장장비들을 돌아보며 연방 탄성을 울리던 동포들은 조선인민군의 복장제도를 보여주는 군복앞에서 이윽도록 발길을 옮기지 못하였다.

군중, 병중, 관등급, 남녀별에 따르는 군복들은 하나와 같이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씩씩하고 단정한 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이때 나이지숙한 한 동포가 장령복을 입은 사람 모형뒤로 슬그머니 가서 동포들에게 머리를 기웃해보이는것이였다.

《내가 어땡소?》

그의 말에 동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 나이가 지금 적지 않지만 이제라도 저런 군복을 입으면 젊은이들 못지 않게 전장을 펴낼 날아다니며 적들을 삼대배듯 할수 있단 말이요. 나에게는 저 군복들이 승리만을 떨쳐가는 승전복으로 여겨지오.》

승전복, 그의 말은 나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며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과 함께 태어난 첫 군복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조선의 첫 군복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1892. 4. 21-1932. 7. 31.)의 손길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에게 유격대의 첫 대원들이 입게 될 군복이니 바늘 한뼘을 뜨고 술기 하나를 박아도 든든하고 알뜰하게 바느질해야 한다고, 머나먼 혈전의 길에서 그 어떤 적탄도 뚫을수 없게, 그 어떤 추위와 눈비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념원을 담아 군복을 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주체 21(1932)년 4월 25일 그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

대한 대원들의 모습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으며 유격대원들은 그 군복을 입고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월 1일 붉은기를 휘날리며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진행하였다.

열병행진을 끝낸 대오가 돌아왔을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앓는 몸으로 토기점골등판에 오르시여 대원들의 총이며 탄띠며를 만져보고 또 만져보시였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녀사의 음성은 퍼그나 젓어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제 나라 군사가 없었던 탓에 조선민족이 흘린 피 눈물은 얼마였고 멸시와 수모는 또 얼마나 받았던가.

무장투쟁만이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하는 길이었기에 우리 나

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주시지 않았던가.

인민의 진정한 군대의 군복을 입고 손에 무장을 잡은 이 나라의 영웅한 아들딸들은 80여년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의 력사에 위대한 승리만을 빛나게 아로새겨왔다.

조선의 군복,

그것은 군인들의 평범한 제복이 아니다. 승리라는 거대한 뜻을 안은 승전복이다.

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언제나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는 항일의 군복을 마음속에 입고 앞으로의 조국통일성전에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다음 전시대로 걸음을 옮기였다.

본사기자 리 해

단 상

조선의 첫 군복

1409년에 최해산이라는 사람이 화차라는 전투장비를 창안하였는데 그것은 일종의 장갑차였다. 화차는 화약무기(화포)를 차우에 싣고 다니면서 불화살들을 쏠수 있게 한 수레였는데 사수를 보호하는 장갑장치도 붙어있었다. 그후 1451년에 새로운 화차

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신기전》이라는 불화살 100개를 쓰는 7층구조의 연발발사대를 싣고 다니게 되어있었다. 이 화차에는 사수들의 몸을 가리우는 방패가 설치되어있었고 불이 달리는것을 막기 위하여 당반과 화살이 나가는 구멍에까지 철판을 씌웠으며 화차의 앞과 옆에는 칼과

창들을 꽂아 적이 접근할수 없게 하였다. 1451년에 이러한 화차들이 337량이나 제작되어 국경과 해안의 군사기지들에 배치되었고 임진조국전쟁때에는 경주성수복 전투와 행주성방어전투 등에 널리 리용되였다. * * *

피어나는 꽃송이를

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있다. 열매만 생각하면 온전한 밀거름이 될수 없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후대들을 위한 밀거름이 되려는 열망, 후대들에게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지식을 모두 넘겨주려는 마음이 결국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 리과대학 정보기술연구소 실장을 한 그가 50살이 넘은 나이에 교단에 설 생각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그는 남들과 다를바가 없는 평범한 공민이다. 남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과학자들보다 과학탐구의 길을 훨씬 늦게 떠났다는것이다. 군사복무를 하고 대학을 마치다니니 남들보다 10여년은 늦어졌다. 하지만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몸에 새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그 나날을 줄곧 즐달음쳐왔다.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것은 조국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 조국은 줄곧 사랑과 은정만을 안겨주었다. 그 사랑과 은정이 있어 그는 사업과 생활에서 걱정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자기가 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올수 있었다.

지난 8년간 그는 1명의 박사를 비롯하여 근 20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으며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비롯한 여러건의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받아안았다. 그리고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민족과학기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자기가 쓴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지능정보처리》, 《흥미있는 인공신경망》 등 독자들이 즐겨 찾는 적지 않은 책들도 집필하였다.

오늘도 그는 거목에 자양분을 더해주는 밀거름이 되려는 열망을 안고 교육사업과 함께 과학탐구의 길을 끝없이 걸어가고있다.

김신길의 가정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학생들속에서 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내어 애지중지 탐스러운 꽃송이들로 활짝 피워가는 모습은 조국의 그 어느 학교에서나 볼수 있다. 수도 평양에 있는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도 그중의 하나이다.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은 초급반, 고급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학교에는 남먼저 조기성악교육의 첫시작을 뎌 부교장 인민교원 리인희를 비롯하여 조명순, 오정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동포자녀들의 조기성악교육사업을 하고있는 리문영을 비롯하여 판록있는 교원들이 많다. 바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학교에서는 재능있는 성악후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그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하여 학교를 찾았다.

여러 소학교에서 음악적소질과 재능의 싹이 발라되어 이곳에 온 학생들은 시창수업으로 여념이 없었다. 시창수업은 매우 흥미진진하였다. 일명눈으로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시창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악보를 보고 정확히 노래하는 능력과 음악적정각을 키워가고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초급 1학년 1반 강미영학생을 만날수 있었으며 그를 통해 그가 학교에 오게된 경위와 성장에 대해 알수 있었다. 학생은 새학년도를 맞으며 진행되는 학생선발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선발 당시 학생의 상태는 노래를 좋아할뿐 성대는 평범한 상태였다고 한다. 선발준칙인 천성, 인물,

체격, 특별한 목소리 등의 항목에 비추어 보며 많은 교원들이 머리를 흔들었지만 부교장 리인희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잠재적인 이 학생의 천성을 느꼈기때문이었다. 그후 학교에서 시창, 피아노, 물동수업을 받게 되면서 미영의 성장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제법 소리를 내는가 하더니 얼마 안있어 성역이 커지고 감각능력과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전도가 기대되는 성악가로 지명되게 되었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초급 3학년 2반 최진아학생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원래 인물체격이 좋았고 음악적감각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많은 학생들속에서 툭 튀어나게 소리바탕이 좋았고 형상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타고난 천성을 지닌 그를 이곳 교원들은 그때 대중가요가수로 점찍었다.

학생은 시창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면서 맑으면서도 정교한 음색과 넓은 음역, 풍부한 음량으로 자연스럽고 부



형상수준을 높이도록

공연을 앞두고

드럽게 그리고 곱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으며 물동수업에서 진행되는 조선장단을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한 타법훈련에 열중하여 몸의 유연성을 더 세련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크게 성장한 고급 3학년 8반 손재원, 3학년 9반 박운아학생들도 만나보았다.

손재원학생은 학교기간 중음에서 고음으로 넘어갈 때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에 맞는 발성법을 따라세워 극복할수 있었으며 이

제는 천성적인 소리를 다 낼수 있게 목소리길을 정확히 잡았다고 말하였다.

박운아학생의 경우는 조기성악교육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그의 노래를 들어본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의 교원들까지도 학생이 목소리를 다 듣고 세련시키는 대학과정안에 해야 할 과제를 매우 잘한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으며 벌써 학생을 대중가요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학생으로 지명하고있다고 한다.

지도교원 오정윤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꽃을 보며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성악 훈련



그 꽃 한송이한송이를 자래우기 위해 바치는 원예사에 대해서는 다는 모르고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교원모두는 성악가후비육성사업은 누가 알아주기에 앞서 나라의 음악예술발전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는 자각을 안고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간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체육인가정



강철남

평양체육단 단장 강철남의 가정은 체육인가정이다.

공훈체육인인 그의 안해 박광복은 기관차체육단 예술체조감독이며 가정의 외동딸인 강진아 역시 어머니와 같은 체육단의 예술체조선수이다.

그들뿐이 아니다. 집안의 가장인 강두순로인도 공훈체육인으로서 오래동안 축구선수, 축구감독으로 일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강철남의 가정을 두고 화목한 가정, 공훈체육인가정이라고 말하고있다.

체육은 그들 가정에 있어서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 직업을 사랑하며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고있다.

《집사람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의 예술체조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있다. 그런 그를 나만이 아닌 온 가정이 도와나서고있다.》며 강철남은 조선체육대학에서 함께 공부할 때 예술체조에서 기어코 성공하려는 안해의 이악한 성격

에 반하여 일생을 같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일본에서 진행된 제7차 4대륙예술체조선수권대회 기재별경기들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박광복은 당시 학급에서 유일한 공훈체육인이었다고 한다.

가정을 이룬 후 그들은 언제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유능한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치였다. 축구전문가인 남편은 비록 예술체조와 거리가 멀지만 선배로서 선수후비육성과 과학적인 훈련지도체계 등도 함께



박광복(왼쪽에서 두번째)

찾아주었으며 어린 진아를 두고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는 안해에게 걱정말고 체육단에 어서 나가보라고 등을 떠밀기도 하였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평양시 대성구역청소년체육학교 교장을 하던 강철남이 평양체육단 단장으로 임명된 후 사업은 더 긴장해졌지만 안해를 위한 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서로 높은 경기성적을 쟁취하기 위하

여 경쟁을 벌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교수훈련방법과 수단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밤늦도록 거듭되는 론쟁과 토론을 하기도 한다.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와 새로운 작품에 대한 구상 등으로 밤이 펴 깊어서야 집에 들어선적이 한두번이 아닌 안해였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들도 하루빨리 선수들의 실력을 높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안아오는것이 자기 가정에 기쁨을 가져오는 길이라며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안해가 관심을 돌려야 할 일들에 저마다 마음을 쓴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색다른 음식이나 옷이 생기면 먼저 시부모부터 생각하고 남편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섰다. 먼저 위해 주고 도와나서는 시부모와 남편, 안해의 진정속에 가정에는 믿음과 헌신의 아름다운 소행들이 나날이 꽃피어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업에서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딸 강진아

3명의 여자축구영웅을 비롯하여 남편이 키운 많은 여자축구선수들이 국가종합팀선수로 선발되어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었으며 그 공로로 하여 그는 교장사업을 하던 시기 공훈교원의 칭호를 받았다.



딸의 훈련을 분석한다.

안해 역시 높은 실력으로 지난 6년동안 국내예술체조경기들에서 우승의 패권을 편이어 쟁취하고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있다.

주체103(2014)년에 있는 로씨야 연해변강공개립예술체조경기에서 종합 1등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강진아도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단순히 어머니이기 전에 엄격한 감독인 박광복의 강한 요구속에 그는 집체경기에서 선수들 호상간의 안삼블보장, 우아하고 툴동적인 동작해결, 매 동작들의 속도와 툴동에 맞는 음악을 현대 예술체조발전추세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적응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박광복은 말하였다.

《훌륭한 체육명수들을 더 많이 키워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지향이다. 그 지향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는 서로 위해주고 도우면서 더 많은 성과들을 달성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날에: 자식많은 부모는 이래저래 마음놓을 날이 없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
-강가에 아이 세워놓은것 같다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스럽고 조마조마하여 안심할수 없음을 이르는 말.
-걱정도 팔자
-아니 해도 될 필요없는 걱정을 자주하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걱정이 반찬이면 상다리 부러

진다
공연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조선속담 (근심)

-눈섭에 불불는다
-당장 큰 걱정거리가 들이닥쳐 급하게 되었다는것을 이르는 말.
-더부살이(가) 환자걱정(한다)

착취사회에서: 남의 집살이하는 신세에 주인집의 환자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전혀 당치 않은 일에 대하여 쓸데없이 하는 걱정을 비겨 이르는 말.
* 더부살이-낮은 사회에서: 남의 집에서 먹고 묵으면서 일을 해주고 값을 받는 사람.
환자-불건사회에서: 봄에 쌀을 꾸어주었다가 가을에 리자를 붙여 받던 착취방법의 하나.
* * *

상식

피로를 가시는 방법

발과 다리를 씻고 발바닥과 발가락에 자극을 주면 피로가 가셔진다.

발과 다리는 물질대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 발과 다리를 제때에 씻어야 땀과 로케물이 축적되지 않고 물질대사가 잘되어 다리가 튼튼해질수 있다. 그러므로 발과 다리를 자주 씻어 몸안의 로케물이 배설되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저녁에 발과 다리를 잘 씻으면 이것만으로도 피로

가 상당히 가셔진다.

발가락과 발바닥에는 몸의 부위와 내장이 직접 연결되어있는 침혈들이 집중되어있다.

레를 들면 엄지발가락은 머리, 그 밑뿌리는 목, 발바닥의 발가락쪽은 잔등, 뒤목, 어깨, 발바닥가운데는 배, 발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은 허리, 생식기와 관련되어있다. 그러므로 발가락과 발바닥의 정해진 곳을 자극하면 내장기능과 그 상태를 조절할수 있다.

발가락과 발바닥을 50번이상 연속 비비는것을 하루에 4번하면 1km를 걷는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 *

지명은 예나 지금이나 같건만...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취재길은 평안북도 구장군으로 향하였다.

맑은 청천강을 끼고 산뜻하게 펼쳐진 군의 모습은 첫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군의 초입구에 아담하게 꾸러진 체육공원과 주차장이며 읍지구를 향하여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 그를 따라 국수집, 은덕원, 미래원 등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여러 봉사시설들과 다층살림집들, 학생들의 글소리, 노래소리 랑랑한 학교들과 현대적인 군문화회관, 체육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청소년들의 활기에 찬 모습...

볼수록 정이 갔고 의문도 커졌다. 그 옛날 보이는건 산과 돌뿐이어서 시장운영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구장이 아닌가.

기쁨과 흥분속에 구장군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가는 우

리의 눈앞에 탄부원이 나졌다. 호기심에 끌려 안으로 들어선 우리는 정갈하면서도 현대미가 나게 꾸러진 내부를 보며 저도모르게 탄성이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리는 방금 수영장에서 나온 한 로인을 만났다.

《아마 사람들은 지하명승 룡문대굴이라면 누구나 구장을 생각할것이요. 허나 룡문대굴이 발굴된 우리 구장군의 이름은 잘 알아도 구장이 어떻게 전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는 모를거요.》

알고보니 그는 뜻밖에도 미국 187 Ward Avenue, Staten Island, NY 10304에서 살고있는 김태희동포의 조카 김지곤(62살)이었다.

우리의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기뻐하며 술선 앞에서 군의 여러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많

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이 군의 70%이상이나 되어 오랜 세월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워왔다는 구장은 일제의 군사적통치로부터 해방된 그날[주체34(1945). 8. 15.]부터 전변의 역사를 수놓기 시작하였다. 해방전에는 물이 없어 논농사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던 구장군에 오늘은 강하천들을 리용한 여러개의 저수지가 건설되고 대대로 내려오던 뽕기밭들이 넓은 규격포전들로 일신되어 알곡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석탄공업을 다른 공업보다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군에서는 이미 있던 룡등, 룡문탄광들을 대규모의 탄광으로 개건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중소규모의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지방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었다.

그리고 일용품, 피복, 식료, 기계, 건재, 제약, 종이공업 등 지방산업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지방공업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추켜세우고있었다.

그 덕에 주민들은 엄동설한에도 따뜻한 살림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곳곳의 지방산업공장들은 군의 풍부한 원료들을 리용하여 식료품, 종이, 약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김로인의 자기 고향에 대한 자랑을 가슴흐뭇하게 들으며 유명한 구장양어장에 들

리였다. 팔뚝같은 칠색송어들이 옥실거리리는 어미못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로인은 해방후 구장군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칠색송어는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은 고급어족이라고, 칠색송어양어장을 잘 꾸려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의 건재공업에서 한몫하고있는 규모가 큰 구장세멘트공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자기 지방에 흔한 석회석과 람정석, 무연탄에 기초한 질 좋은 세멘트가 쏟아져나오는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절로 흥그러워졌다.

그는 이 모든 전변은 다름아닌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구장땅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그때로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구장

그만이 아닌 군의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이곳 사람들의 긍지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나라의 관심속에 더욱 훌륭히 변모되어 가는 구장군의 모습, 자기 힘을 자각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고장을 꾸려가는 구장사람들의 모습에서 더욱 훌륭히 변모될 구장군의 래일을 그려보며 지하명승 룡문대굴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룡등탄광



가정을 찾는 호담당 의사



군문화회관에서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구장군 구장소학교에서

군에 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있는 삼촌에게도 자기 고향에 대하여 늘 자랑하군 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남다른 자랑을 안고사는 사람, 우리에게 그의 모습이 무척 돋보이였다.



지하명승 룡문대굴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적이 깃든 구장객주집



중국 길림성 화전시 승리가 북안위 12조 김봉은형님에게

그리움속에 추억의 걸피를 더듬으며

형님, 그동안 앓지 않으시요?

형님께 집에서 다들 잘 있으리라고 보오.

세월은 류수와 같더니 형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던게 엇그제같은데 벌써 4년이 됐소. 한해한해 나이가 많아지니 먼저 간 부모님들생각, 형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오. 그리운 감정이 형님의 모습을 불러왔는지 어제는 꿈속에서 형님을 만나지 않았겠소. 생각했던것보다 더 정정해진 형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기쁨속에 형님을 꼭 그리어내기까지 했수다. 잠을 깨어서두 꿈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아 이렇게 펜을 들었수다.

펜을 들고보니 흘러간 지난날이 떠오르오.

지금도 12살에 고아가 된 나를 위해 고생을 하던 형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오. 나를 소학교에 보내느라 굶은날, 마른날 따로 없이 아득바득 애쓰던 모습이며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남겨두곤 하던 부모같은 모습이 말이오.

생각나우? 미술공부를 하고싶다고 때를 쓰던 나를 달래던 일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난 민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곤 하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자식들에게 자주 말한다오. 제 입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던 그 세월에 나를 위해 바친 형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오. 그럴 때면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려온 나날이 떠올라 가슴이 후터워지곤 하오.

지난번에 형님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난 조국의 품에서 나의 소원도 희망도 모두 성취하였소. 정말이지 그 품은 나의 정든 보금자리요.

우리 집식구들도 다 잘 있소. 형님도 텔레비존과 신문, 방송을 통해 알겠지만 지금 조국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인민생활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있소.

내가 사는 구장도 같소. 문화주택들이 수없이 일떠서서 형님이 30여년전에 와보았던 때와는 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소.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앞에 있던 국수집자리에 현대적인 전자도서실인 미래원이 일떠섰수다. 바로 거기서 우리 둘째아들 철만이 컴퓨터교육사사로 일하고있소. 또 우리 집

맞은켠에는 문화생활거점인 문화회관이 훌륭하게 일떠섰수다.

그뿐이 아니요. 현대적인 수영장과 탁구장 등 봉사시설을 그뿐히 갖춘 탄부원이 일떠서서 탄부들뿐아니라 군안의 모든 사람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소. 우리 손주들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한다오.

나라없던 그 세월엔 사람 못살 고장이었던 구장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만리마의 속도로 날과달이 다르게 천지개벽되고있수다.

형님도 알겠지만 조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소. 지금 우리 구장에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소.

형님,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다 적을수 없는게 정말 안타깝소.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구 형님이 꼭 조국에 와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리라 믿으면서 이만 펜을 놓겠소.

형님, 나이도 많은데 건강에 특별히 류의하시오. 아울러 온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오.

평안북도 구장군 을 82인민반 김봉근사촌동생 올림

뜻깊게 경축한 광명성절

해마다 중국, 로씨야, 일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중국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은 광명성절경축행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연길시에서는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와 영화감상회, 경축예술공연, 경축연회가 있었으며 심양시에서는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 채택모임,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베이징시에서도 중남지구협회가 펼쳐놓은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동포들은 조국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위대한 전변과 새로운 기적의 력사가 펼쳐지고 주체의 위성인

《광명성-4》호가 무변광대한 우주로 날아올라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또다시 만방에 과시되는 민족사적대경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우주강국의 해외공민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4돛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총련중앙사진전시회, 총련 금강산가극단과 재일동포들, 학생들이 출연하는 경축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으며 총련중앙강연회도 있었다. 강연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소년들에게 베풀어주신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수록한 영화가 상영되었다.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예술인들은 미국예술인들과 함께 경축음악회 《2월의 봄》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가 지휘하는 관현악 《승리의 길》로 시작된 음악회는 관중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을 본 재미동포들과 유엔주재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인들은 최고의 공연이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 평양의 힘을 폐부로 느꼈다고 하면서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외에도 로씨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사는 동포들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넘쳐 강연회, 회고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해외동포들은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대표단, 예술단을 못하고 조국에 찾아와 조국인민들과 함께 보내었다.

야 화

전편에 계속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 안심대(만물상구역)가 있다. 안심대의 계단을 내려 왼쪽으로 계속 툭아오르면 깎아지른듯 한 바위벽이 앞을 가로막는데 그 바위의 중턱 틈사이로 맑은 물이 솟아나와 웅달샘을 이룬것을 볼수 있다.

예로부터 이 웅달샘물을 마시면 지팽이를 짚고있던 늙은이들도 기운이 솟아 지팽이마저 잊고간다고 하였다. 하여 이 샘물을 《망장천》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먼 옛날 이 골안에는 힘이 센 쇠바위라는 총각과 어여쁜 옥분이라는 처녀가 뜻이 맞아 백년가약을 맺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그들은 금강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한낮이 되도록 약초를 캐던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 여기저기 물을 찾다가 자그마한 샘을 찾게 되었다. 너무 기뻐 마음껏 물을 마신 할아버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다.

한잠 푹 자고 깨어보니 웬일인지 굶었던 허리는 퍼지고 장수가 된듯 새힘이 솟았다. 그래서 단숨에 천천대에 올라 절승경개를 취한듯 구경하고 어두워져야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의 손에는 지팽이가 없어지고 약초만 들리워있었다.

령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가 시집을 때 맞이하였던 신랑의 모습그대로인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다.

남편한테서 사연을 들은 할머니는 다음날 샘물을 찾아떠났다.

날이 저물도록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는 만물상의 그 샘터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 샘물터옆에는 자기의 로친이 아니라 어여쁜 처녀가 앉아있었다.

그는 처녀시절의 자기 로친이 분명하였다. 이렇게 젊어진 부부는 다시 청춘이 되어 오래오래 잘살았다고 한다.

* * *

- 뜻깊게 경축한 광명성절 -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



보고를 하는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연길(왼쪽)과 심양(오른쪽)에서 진행된 영화감상회



료녕지구협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꽃바구니를 정성껏 마련하는
심양시 동포들과 김금자가정



행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애쓰는 본부일군들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소식에 접하고 기뻐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일군들



예술공연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경축연회장에서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의 일부



공연에 출연할 준비를
하는 동포자녀들



환희속에 맞이한 명절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광명성절이지만 이번처럼 우리 동포들이 환희에 넘쳐있을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뜻깊은 2월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또다시 세계에 우뚝 올라섰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국의 위성발사성공소식을 듣고 우리 본부로는 불이 날 정도로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기쁨에 넘쳐 조국에 드리는 축하의 인사를 전해왔던 그들이여선지 경축행사장의 분위기는 불도가나같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마음은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료녕지구협회의 동포들과 경축공연무대에서 노래부르는 경제인연합회일군들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중동포들은 더욱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기적을 창조하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나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나도 오늘의 이 긍지를 안고 동포대중이 애국 활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총련합회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



연출할수 없는 화폭

1998년부터 나는 고국에 다섯번째로 오고있다.
 올 때마다 나는 몰라보게 변모되는 고국의 모습에서 커다란 긍지를 느끼곤 한다.
 특히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참가하였던 나는 그 행사들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끼었다.
 열병식에서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군인들, 광장주석단을 지나가며 만세를 부르는 인민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천지를 진감하며 창공높이 울려 퍼지던 만세의 환호성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연출해내지 못할것이다.
 이런 위대한 령도자와 인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이번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나는 고국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일심단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조국통일》이라는 표어들이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 아니라 조선로동당과 인민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의 반영



이라는것을 뇌리에 사무치도록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고국인민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것을 나는 확신한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기관지 《통일》신문 주필 석미란



《또 낡은것으로 될텐데...》

1년만에 조국에 왔다. 그동안 정말 모든것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해마다 조국에 오지만 올 때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은 나에게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안겨준다.
 정말 조국은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전진한다. 그러니 조국

인민들모두가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 새 세기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도 생각하면 몇해전 조국방문시 평양지하철도를 돌아보며 78살난 한 동포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그때는 여름철이어서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본 우리가 평양지하철도에 들어섰을 때였다. 아무말없이 평양의 거리를 유심히 살펴보며 오던 그 로인이 글썽 지하철도에 들어서는데 순간 탄성을 울리는것이였다.
 그때 그는 길거리에 왜 사람들이 얼마 없는가 했더니 이 지하궁전에서 살고있다고 하면서

정말 평양지하철도는 지하궁전이라고, 난생처음 이런 지하철도를 본다고 하면서 연방 감탄하였다.
 그러나 지금 조국의 모습은 그때와는 대비도 안되게 나날이 달라지고있다. 아마 그 로인이 또다시 조국에 온다면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동포들에게 보여줄 조국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또 담으며 생각하였다. 내가 찍은 사진이 지부에 도착하면 또 낡은것으로 될텐데...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목단강지구협회 회장 남초월

조선이 가는 길

조선은 어느 길로 가는가.
 지금 세계는 조선이 선택한 길, 조선이 가는 길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나도 10여년전부터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적지 않은 의문을 안고왔었고 또 와서는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내심 노력하였다.
 하지만 고국의 현실을 대하면 대할수록 고국이 선택한 길이 천만번 옳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제는 그것이 반석같이 다져졌음을 당당히 말하고싶다.
 동물들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힘이 센 짐승은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또 약한 짐승은 그보다 더 작은 짐승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사는 오늘의 세계도 그렇게 흐른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힘이 없고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하며 남의 먹이감이 되여야 하는것이 오늘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려는 기미만 보이면 그것을 시비하며 조금이라도 순응하지 않으면 침략전쟁도 서슴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나의 고국인 조선에서만은 통하지 않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침략세력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강성해지는 조선의 모습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핵무기를 휘두르며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지나온 조선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흥계를 꾸민 미제의 핵위협과 공갈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지속되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온 조선반도에서 오늘처럼 정치군사적대치상태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열핵전쟁이 기정사실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가까운 실례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고국의 평화적위성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을 결고 날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조작하는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에 불을 달기 위한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었다.
 하지만 여기에 겁을 먹을 고국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부터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핵으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침략세력과는 오직 핵으로 맞서싸워야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다는 철리를 가르쳐주는 이 로선은 얼마나 정당한 조치인가.
 하기에 이 로선은 제시되자마자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

킨것이다.
 정말 강한 고국을 둔것을 나는 자랑스러, 영광으로 여긴다.
 이뿐이 아니다.
 고국은 청년강국이기도 하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모습에서 그 나라의 전도가 결정되거늘 정신상태가 좋고 조국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 청년들에 의해 고국은 더 빨리, 더 높이 비



약할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정애로의 길은 여러 갈래이지만 진리의 길은 하나이다는 말이 있듯이 조선이 가는 길, 고국이 선택한 길인 자주의 길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진리의 길이라고.
 하기에 나는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날로 변모되는 고국의 모습에서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고국에 힘은 못 주지만 마음으로 고국을 지지하며 언제나 고국과 운명을 같이해나갈것이다.

중국 료녕성조선족로인협회 회장 리석복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1)

무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는 조선의 정통무도 태권도.

구성과 내용, 동작의 과학성과 위력, 무도로서의 성격과 체육으로서의 성격 등이 완벽한 태권도는 그 력사가 유구한것으로 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무도인들의 감탄과 매혹을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태권도는 조선의 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권법의 발상지-고조선

예로부터 동방은 격투술의 발상지로서 그 력사가 유구할뿐아니라 우수한 격투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조선은 세계적으로 격투술의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로서 격투술의 조상국이다.

격투술이란 서로 맞붙어서 치고 받거나 혹은 힘으로 메치는 등 완력과 법수로 대방을 제압함으로써 공격능력을 상실 또는 약화감소시키는 방법이나 술법을 말한다.

격투술은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면서 적을 타격하며 적의 공격을 좌절시킨다.

격투술에는 맨손으로 하는것과 몽둥이, 단도, 긴칼 등 무기를 가지고 하는것들이 있다.

격투술은 나라와 민족마다 명

칭이 서로 다르며 기술적내용에서도 약간씩 차이난다.

그것은 격투술의 발전자체가 해당 민족의 발전력사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격투술은 고조선에서 발생되고 고구려때 그 기본틀거리가 형성되어 전통화되었다.

조선민족의 시조 단군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에 능하였다. 구월산을 비롯하여 단군관계유적이 있는 곳에는 단군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는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그리고 평양시 강동구역과 평안남도 성천군의 홍산을 비롯한 평양 주변의 여러 단군관계유적과 지명들에도 단군이 갖가지 무술훈련을 하였다는 유래들이 수없이 많다.

이러한 단군전설들에는 의례히 무술로 주변소국들을 제압한 단군의 위훈들이 전해지고있다. 강동구역의 단군릉에서 드러난 단군뼈화석을 인류학적견지에서 연구해볼 때 단군은 키가 크고 골격이 매우 우람한 인물로서 격투술-무술에 능한 인물이였음을 일목로연하게 알수 있게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조선무술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인물은 다른 단군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고조선에서의 무술활동은 여러 력사유적유물에도 반영되어

있다. 고조선유물로는 여러가지 돌활촉과 청동활촉 그리고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청동창끝, 청동도끼 등의 무기들을 들수 있다. 이 유물들은 쟁기를 가지고하는 격투술에서 없어서는 안될 무기들이다.

고조선의 발전된 무기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국방위와 영역확대 그리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격투술을 얼마나 련마하였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이런 고조선의 격투술이 조선 권법의 시조로 되었다.

발전된 고구려의 권법은 이웃 나라, 이웃민족의 격투술발전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과 국제적시합을 자주 진행하면서 기술적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고 더욱 보충완성되어왔다.

조선의 권법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동안이나 전해온것으로서 그 유구성으로 보나 수준의 높기로 보나 세계에 자랑할만 한 체육유산이다.

조선의 권법은 오랜 기간 이러저러한 명칭으로 불리워오다가 1785년에 발행된 국가적법전인 《대전통편》에 《조선권법》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지어지고 법규화되었다.

본사기자 전 민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 대성산성 -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 우리는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으로 향하였습니다. 거기에는 3~5세기의 고구려 산성이 있었던것입니다.

그 산성은 다름아닌 대성산성입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력사와 고구려사람들의 뛰어난 슬기를 보여주는 오랜 유적의 하나입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산성들가운데서 가장 큰것의 하나입니다.

자랑스럽고도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왕궁이였던 안학궁성을 보위하는 방위성이였습니다. 이 성은 고구려 산성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대성산성은 그 둘레가 7 076m나 되며 성벽의 길이는 9 284m입니다. 산성은 높이 270m의 을지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련결하고있으며 그안에 2개의 넓고 깊은 골짜기를 끼고있어 많은 사람들과 전투기재 및 물자들을 수용하고 보관할수 있습니다. 성안에는 식량창고터, 무기고터, 병실터들이 많습니다.

대성산성은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쌓은 성입니다. 성의 북쪽에는 험준한 산줄기들이 첩첩히 잇닿아있고 동쪽과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남쪽에는 대동강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은 성벽으로 가로막혀있습니다. 남쪽의 골짜기부분은 적들이 노리는 곳이므로 여기에는 겹

대성산성



성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대성산성은 적들이 쳐들어오기에는 매우 힘들고 방어하기에는 위력한 성새였습니다.

대성산성의 성돌은 대성산과 그 부근의 자연석을 일정한 크기의 4각추모양으로 다듬어 벽돌쌓듯이 서로 어긋물려 일매지게 쌓아 성벽이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성벽에는 요소마다 치를 설치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소문봉의 치는 성벽에서 직각으로 길이 12m, 너비 10m, 높이 3m입니다.

대성산성은 견고하였기때문에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튼튼한 성새로 되었습니다. 현재 소문봉에 남아있는 약 200m구간의 성벽은 원상대로 복구한것입니다.

성에서는 20개의 문터가 발견되었는데 현재 대성산성 남문이 남아있습니다. 장대는 국사봉, 주작봉, 소문봉, 장수봉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성벽이 꺾이는 모서리에는 각루를 설치하고 성벽의 바깥에는 도랑(황)을 파놓았습니다. 대성산성 성벽쌓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그 기초시설입니다. 물이 자꾸 스며들면 성벽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돌기둥처럼 돌들을 땅속깊이 묻고 그 사이사이에는 공간을 내든가 모래를 채워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기발한 수법을 썼습니다.

대성산성에는 잉어못, 사슴못, 구룡못, 장수못을 비롯한 170개의 못이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못들가운데서 구룡못은 길이 18m, 너비 18m인 장방형이며 그 길이는 4m입니다. 못의 둘레에는 돌을 쌓고 바닥에는 30cm 두께로 진흙을 다졌습니다. 대성산성안에서는 고구려기와들과 금동불상과 불경이 들어있던 돌함 등 유적, 유물들과 여러개의 샘도 발견되었습니다.

산성에는 록족부인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많은 전설들이 깃들어있으며 후대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의의가 있는 고적들이 많이 발굴 및 복원되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비물질문화유산이란 한 민족이 력사발전과정에 이룩하여 후세에 남긴 정신문화적재부로서 사회적집단이나 개별적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관습과 표현, 지식, 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수단과 도구, 수공예품, 문화적공간을 의미한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비물질 문화유산들은 해당 집단의 성원들에게 동일성과 계승성의 의미를 안겨주며 문화적다양성과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킨다. 지난 세기말 제국주의반동들이 몰아오는 《세계화》바람과 부정적인 사회적변혁과정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물질문화유산들이 급속히 쇠퇴, 실종, 파괴되고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비물질문화유산과 그 보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때로부터 문화적다양성보호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조성되게 되었다.

유네스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그 의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 협조를 도모할 목적으로부터 2003년 10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는 주체97(2008)년에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조선민요 《아리랑》과 《김치담그기풍습》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 *

상식 비물질문화유산

아리랑식당의 소불고기 냄새에 이끌리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조국을 방문한 재중동포들과 함께 평양호텔에서부터 대동강유보도를 따라 산보하러 나가던 우리는 한 동포가 손뼉까지 치며 하는 말에 그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야!- 거 불고기 냄새 참 좋다. 창자를 다 뒤집어놓는것 같구만.》

《저기 아리랑식당의 소불고기 기념새요. 언젠가 나도 한번 맛보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오.》

아리랑식당?! 소불고기?! 아리랑이라는 식당이름만 들어도 조선민족의 정서가 가슴에 흘러넘쳤고 향기를 날리며 구워지는 맛있는 소불고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산보는 후에 하고 우리 이제 당장 아리랑식당에서 소불고기를 맛보는것이 어떻소?》

《거 좋은 생각이요. 빨리 갑시다. 하하하...》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은 우리는 불고기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선사람이라면 불고기에 대한 표상은 다 있을것입니다. 이름그대로 불에 구운 고기료리인 불고기는 영양가가 높

고 그 맛과 독특한 냄새로 하여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고 있습니다.

불고기는 우리 나라 민족음식가운데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음식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도 《조선불고기》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고구려시기에는 불고기를 《맥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맥적》에서 《맥》은 고구려의 기본주민집단을, 《적》은 구이를 가리켰으므로 《맥적》은 고구려의 불고기를 의미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불고기음식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은 양념한 소고기를 대나무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익혀먹는 설야떡적(눈오는 겨울밤에 먹는것이 제격이래므로부터 불은 이름)이었습니다.

력사기록에는 고기가 반쯤

익은것을 잠깐 찬물에 담그었다가 꺼내여 센 불에 굽는일을 세번 반복한 다음 기름을 바르고 한번 더 구워내면 맛이 연하고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불고기재료로는 주로 소고기, 오리고기, 양고기를 비롯한 짐승고기를 쓰고있는데 그가운데서 소불고기는 일찍부터 세상에 이름이 높았습니다.

우리 식탁을 맡은 접대원 한은정은 아랫다운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조선소불고기가 특유한 맛을 가지고있는것은 고기를 재울 때 파와 마늘, 참기름, 후추가루를 넣은 다음 배즙에 재우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의 가정에서나 들놀이때 소불고기를 맛있게 잡숫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간단히 소개해주었습니다.

《음식감으로는(1명분일때) 소등심살 400g, 배 50g, 소금 1g, 간장 10g, 참기름 10g, 사탕가루 10g, 식초 5g, 파 20g, 마늘 30g, 깨가루 3g, 후추가루 0.5g 이 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소등심살을 깨끗이 씻어 길이 7cm, 너비 5cm, 두께 0.2cm의 크기로 저민 다음 칼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연하게 합니다.

마늘과 파의 흰부분은 잘게 다집니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냅니다. 간장에 깨가루, 사탕가루, 후추가루, 참기름, 파, 마늘을 두고 고루 저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다음 양념한 고기를 배즙에 버무립니다. 그다음 불구에 적외를 올려놓고 양념에 재운 고기를 저가락으로 떠놓아 굽습니다. 고기의 한쪽면이 거의 구워지면 뒤집어서 잠시 더 굽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구우면 속이 익기 전에 겉만 타므로 불의 세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약한 불에서 구우면 맛있고 영양가높은 고기즙이 많이 흘러나오므로 불의 세기를 알맞게 해야 합니다. 소불고기는 절반정도 익혀야 향기롭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잘 구워진 소고기를 더 맛있게 잡수려면 초간장맛이 좋아야 합니다. 입맛에 따라 초간장에 참기름과 겨자장을 더 넣을수도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조선소불고기를 맛있게 구워먹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라도향(1902년-1927년)은 1920년대 전반기에 활동한 비관적사실주의경향의 소설가이다. 그의 이름은 경손이며 호는 도향 또는 빈이다. 그는 서울의 한 고려의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서울의학전문학교를 중퇴한 라도향은 주체10(1921)년부터 《신청년》, 《시대일보》 등 잡지사, 신문사들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퇴폐적인 부르주아문학단체인 《백조》의 동인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초기창작에는 감상주의와 소극적량만주의의 색채가 진하다. 주체11(1922)년에 창작된 《젊은이

의 시절》,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옛날의 꿈은 창백하더이다》, 장편소설 《환희》를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들이 다 그러한 경향의 작품들이다.

그후 라도향은 장성하는 로동운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영향 밑에 감상적이며 량만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창작세계의 이러한 전환과정은 단편소설 《17원 50전》(1923년)에서 명확히 찾아볼수 있다. 단편소설 《행랑자식》(1923년), 《자기를 찾기 전》(1924년), 《병어리 삼룡이》(1925년), 《지형근》(1926년) 등은 비관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행랑자식》은 그의 창작생활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작품으로서 비관적사실주의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그는 소설에서 가난한탕으로 이른 새벽부터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하루종일 울적한 심정속에서 지내는 어린 소년의 심리를 뜨거운 동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순진한 소년을 모욕하고 학대하는자들을 비판하고있다.

라도향은 또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천대받고 짓밟히는 사람들의 불행한 운명을 통하여 악착한 착취사회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라 도 향

인간의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하는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뜨거운 인간적동정으로 그들의

존엄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에서는 뚜렷한 계급적자각과 지향을 가지고 의식적인 투쟁을 벌리는 계급적인 인간들을 그려내지 못하였으며 주인공들의 울분과 항거정신도 흔히 개인복수적인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암담한 환경에서 사회적모순과 불행을 타개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모태기던 작가자신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부터 초래된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라도향은 1920년대의 비관적사실주의의 대표적작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 * *

유모아

모자아래의 물건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는 한사람이 있었다. 그는 너무 오래동안 써서 다 낡아빠진 모자도 거리에 나갈 때에는 꼭꼭 쓰고다니었다. 어느날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당신 머리위의 물건은 도대체 뭐요? 모자라고 할수 있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모자아래의 물건은 뭐요? 머리라고 할수 있소?》

* * *

평화수호는 통일의 근본조건

오늘 우리 겨레는 하루빨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종식되고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진이 열리어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고 밝혀주시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이다.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도 70년이 넘는다. 온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과 함께 지속적인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왔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주되는 요인은 바로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들이다.

조선반도를 장악하여야 아시아대륙,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타산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반도에 수많은 무장장비들과 핵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다.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지난해 미국이 《북핵위협》과 《도발대비》의 간판밑에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들을 벌림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최극단으로 치달았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이 언제 전쟁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모른다. 만일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며 그 피해자는 다름아닌 조선민족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가 언제가도 이룩될수 없고 북남관계도 외세의 북침핵전쟁의 희생물로밖에 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이 계속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북남사이에 신의있는 대화 이루어질수 없고 또 그것이 관계개선으로 이어질수 없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는 격화되는 북남사이의 매듭을 풀고 관계개선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그 무슨 《대화》와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침전쟁연습들의 중단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여 왔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제안들을 수없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해에도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에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를 끝장내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공명정대한 발기도 내놓았다.

내외호전세력의 핵위협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엄중한 사태하에서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핵위협, 누가?

오늘 미국은 《북조선의 핵위협이 조선반도의 재앙이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현자라면 력사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1945년 7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탄시험을 진행한 미국은 그해 8월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인류를 극도의 핵공포증에 몰아넣었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전인류를 대상으로 핵몽둥이를 휘둘렀다. 특히 미국의 조선에 대한 핵위협과 공같은 력사에 류례없는것이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1950. 6. 25-1953. 7. 27.)에 감행한 미국의 핵공같은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뇌까리였다. 이때 인천앞바다의 미항공포함에는 핵무기가 이미 배비되었고 핵탄을 적재한 함재기들이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떠벌였으며 다음해에는 조선에서 《원자탄사

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해야 할것이다.》는 폭언도 늘어놓았다.

미국의 핵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리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서 갈라져 사는 비극을 낳았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전후에도 계속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다. 특히 미국의 정객들은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것이란》이라고 하면서 핵전쟁준비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1954년 1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량보복계획》을 공개한 미국은 1957년 7월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단을 전술핵무장을 갖춘 《펜토믹》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오네스트 존》 핵미사일대대, 280mm 원자포대대, 미공군 588전술유도탄대대를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미군 4유도탄사령부도 창설하였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수는 1970년대에 1 000여개, 1990년대에는 1 720개를 넘어섰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실지 공화국

을 반대하는 핵전쟁에 썩먹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페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 핵전쟁연습은 그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런 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며 수십여년동안 감행되였다.

한편 미국은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가증되였다.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 그것은 극도에 달하였다. 부쉬는 대통령자리에 앉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시기에 채택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뿐 아니라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제창한 현 미행정부도 공화국을 핵무기불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로골적인 핵위협을 가하여왔다.

공화국의 《핵위협》과 《도발》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를 노린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하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본사기자 강진성

지을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3)

이번호에서는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물의 하나인 고분들과 부장품, 도자기들을 파괴략탈한 만행에 대하여 까밝혀보려고 한다.

- 고분도굴파괴와 부장품, 도자기략탈 -

일제의 력대 고분들에 대한 파괴략탈행위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시기와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이후시기에 진행된 파괴략탈행위이다.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시기 일제는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침략전

쟁에 광분하면서 주로 군사적 위협과 총칼을 앞세우고 군대와 헌병, 경찰을 동원시켜 파괴략탈하는 방법으로 고분들에 대한 도굴과 파괴를 감행하였다.

일제에 의한 도굴과 파괴략탈은 청일전쟁시기부터 본격화되어 로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더욱 횡포하게 감행되었다. 단적인 실례로 고려 31대왕인 경효왕(공민왕)의 현릉이 이 만행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있다. 고려석조기술연구에 있어서나 고려시기의 문제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이 고분에 헌병, 경찰 등 수십명으로 무리를 이룬 대도굴단이 달려들어 출입구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덤무지의 북쪽부분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고 그안에 들어가 달구지 10여대에분에 해당하는 유물들을 약탈해갔다.

또한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이후 주로 《학술조사》의 미명하에 공공연히 고분들에 대한 도굴과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1916년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공포한데 이어 5개년제에 걸치는 《고적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이 계획을 《시급히 수행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개성 및 강화도의 고분 200여기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고적조사위원회》조직후 2~3개월동안에 고려시기의 무덤 200기와 그밖의 300기의 고분을 파헤치고 수많은 유물을 약탈하였다.

일제는 《학술조사》의 미명하에 단군과 동명왕을 비롯한 조선민족의 원시조와

일제가 약탈해간 도자 공예품들의 일부



평안북도 운산군 룡호동무덤을 강제로 파헤치는 일제

력대 왕조의 시조릉부터 파헤치고 파괴략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에 대한 숭배심을 없애며 그곳에 매장된 유물들을 약탈할 목적으로 단군릉을 도굴하였다. 일제는 이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에 일어날 조선인민의 반항이 두려워 그 주변에 2중3중의 삼엄한 경계망을 펴놓고 룡의 봉분을 파헤쳐 무덤칸 천정돌을 제긴 다음 유물을 약탈하기 위하여 관을 마스고 유골까지 마구 헤쳐 버렸다.

단군릉뿐아니라 지난날 조선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릉과 조선의 첫 통일국가의 시조인 왕건왕릉, 고려의 력대 왕릉들과 고분

들도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도굴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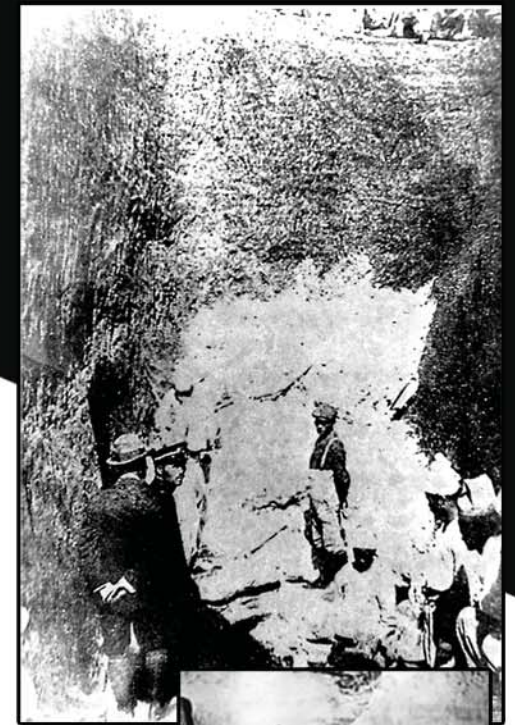
조선봉건왕조실록과 일제가 발표한 《고적조사보고》에 기록되어 있는것만 보아도 1905년부터 1912년까지의 사이에 10여기의 왕릉이 파괴략탈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도자기들도 수많이 약탈해갔다.

일제는 우리 선조들이 제일 공경해온 조상의 무덤을 백주에 도굴하여 부장품으로 묻힌 각이한 시대의 도자기들을 약탈한것은 물론 낱강도적인 방법으로 민가들까지 살살이 뒤져서는 밥그릇이나 접시 할것없이 가치가 있다고 할만 한것은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다.

뿐만아니라 일본인수집가들은 부당한 매매행위를 통해서도 수많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자기를 약탈하여 폭리를 보았다.

도자기들이 철저한 도



고분을 도굴하는 일제



굴품이었다는데 대해서 일본사람 노모리 겐은 《고려도자의 연구》에서 《고려자기, 이것들은 어느것이나 도굴에 의하여 고려시대의 고분에서 드러난것이다.》라고 명백히 기록하고있다.

일본에 약탈되어간 고려자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자기를 비롯한 도자기들은 일본의 《국보》나 《중요미술품》으로 규정되어 차거운 이역의 전시장과 미술관들에 소장되어있지만 일제의 죄행을 말없이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물로 오늘도 남아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허위와 위선뿐인 《인권》 다령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은 그 누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고 있다. 하다면 《인권》 타령을 부르짖는 그 나라들에서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보기로 하자.

최대인권유린

미국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인권유린만행을 빼놓지 감행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지역들에 수천개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전개되어 있다. 미국은 바로 이 수많은 기지들에 비밀감옥을 꾸려놓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로분자》 혐의를 씌워 온갖 모욕과 참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고 있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감옥에 갇혔던 한 이라크인은 미군의 인간모독행위와 고문만행을 날 낱이 폭로하였다.

죄 아닌 죄로 이 감옥안에 들어간 그를 포함한 7명의 수감자들은 첫날부터 미군병사들의 강요로 옷을 몽땅 벗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무자비한 구타와 칼부림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알몸뚱이가 된 수감자들에게 《인간피라미드》라는 것을 쌓게 하였는데 밑에 4명, 그 위에 2명, 맨 위에 1명이 섰다. 《피라미드》가 잘 만들어질 때까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굴욕적인 학대행위들이 매일 4시간 이상 계속되었으며 자기들이 구타당하고 모욕당하는 장면을 남자도 아닌 녀병사가 코노래까지 부르면서 거리낌없이 사진찍고 촬영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이라크인은 격분에 넘쳐 폭로하였다.

미군은 판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만행을 수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 감옥에 8년동안 갇혀있던 한 소말리아인은 기자회견에서 감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고 하면서 같이 감금되어있던 여러 사람이 수감과정에서 소경이 되고 손발을 잃었으며 나중에는 정신병자로 되었다고 폭로하였다.

뺏어버릴수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

지난해 비밀해제된 타이의 정보문서에서 일본군성노예포로명단이 발견되었다.

전후 타이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있던 일본군

성노예포로명단에는 조선인여성들의 수가 1 500여명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그중 460여명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패망직전 일본군부는 저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성노예여성들을 《간호조무사》로 변경등록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다 한다.

과거 일제가 수많은 조선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들여 간 범죄적만행을 입증하는 비밀문서들이 발견되었지만 이번과 같이 성노예포로명단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일제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강제로 련행하여 침략의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그 어디를 막론하고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야수적으로 학살한 범죄적만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를 통해서도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일본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집단적강행위이며 역사상 류례없는 여성인권유린범죄이고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세워져있는 소녀상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철거시키기 위해 갖은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로 외곽될수도 덜어버릴수도 없는것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이다.

인권재난-피난민사태

얼마전 유엔은 세계적으로 피난민수가 6 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있는 속에 수리아와 이라크에서는 1 500만명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지난 1년간 예멘에서의 피난민수는 100만명에 달하였다.

리비아에서는 2015년 상반기기간에만도 43만 4 000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남부수단에서는 82만명이상이 한지에 나왔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유럽은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고 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매매군들의 회유에 속아 다녔아빠진 밀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바

유적

청류정

청류정은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 있는 모란봉에 자리잡고 있다.

이 루정은 본래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서문인 정해문의 문루였다. 정해문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평양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1716년에 고쳐세웠다. 주체16(1927)년에 정해문을 없애고 그 문루를 지금의 위치에 옮겨지으면서 청류벽의 이름을 따서 《청류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청류정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조국의 옹바른 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주체48(1959)년 옛 모습대로 복구되었다. 청류정은 정면 3간

(11. 08m), 측면 2간(6. 2m)의 단층루정이며 10개의 흘림기둥우에 떠받들리운 합각집이다. 건물에는 간결한 모루단청을 입혔다. 청류정은 정면에서 가운데간을 넓혔으며 단익공두공을 쓰면서도 액방과 장여사이를 넓게 잡고 거기에 화반을 끼우는 것과 같은 구조상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루건축을 루정으로 전환시킨데서 온 것이다.

청류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주체35(1946)년 3월 2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다녀가신 뜻깊은 곳이다.

* * *



다에 수장되어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는데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피난민수는 지난해 10월말까지 3 320여명에 달하고 있다.

유럽땅에 가까스로 발을 들여놓으면 평온한 생활이 기다리는가.

아니다.

한심한 수용시설들에 피난민들을 집결시켜놓았다가 본국으로 보내는가 하면 피난민들을 짐짝처럼 차량들에 실어 강제이송하고 경찰들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듯이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던져

주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있다.

이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신문과 텔레비존을 통해 보면서 인류는 세계적피난민대란이야말로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반테로》, 《인권옹호》 등 허울좋은 구실밑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는 미국의 특대형반인권범죄의 산물이라는것을 절감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솔미



모란봉의 봄 본사기자 최원철

살구꽃,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는 봄날
모란봉의 청류정에 올라 점도록 봄의 향기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란봉의 경치를 한껏 더해준다.